

제7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공동선언문(안)

2018년 7월 18일 한국 서울

1. 한국, 중국, 일본의 교통물류 장관은 2018년 7월 18일 한국 서울에서 제7차 교통물류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삼국은 지난 여섯 차례 회의에서 마련된 실천과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실천과제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실천과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달성할 것을 독려했다.

2. 우리는 한중일 3국이 세계 경제와 교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3국의 GDP 총액은 세계 경제의 약 23.1%(2017년 기준, IMF)이고, 3국에서 발생하는 무역액은 약 6조 5270억 달러로서, 2017년 세계 무역액의 18.4%이다(IMF). 3국은 아시아 번영의 중심축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의 중심 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1. 우리는 3국의 교통·물류산업이 해외무역의 원활한 수단으로 기능하며 경제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점과 교통·물류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것이 동북아의 교역 활성화와 미래지향적 교통·물류 산업의 발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3. 우리는 2018년 5월 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7차 한중일 정상회담의 정신을 계승하여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적 연계가 제고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이익을 주는 지역적 연계성과 사회기반시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의 대화와 협의를 추구해나갈 것”이며, “무역 원활화 및 무역안전을 위해 세관 및 운송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다.

4. 우리는 2006년 제1회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최 이후 12년 동안 한중일 물류협력의 주요 목표를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환경친화적인 물류 구축”, “물류보안과 물류효율성의 조화 달성”으로 설정하고, 12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이행하였다. 올해 2018년 제7차 장관회의부터는 3국의 대내외 물류 관련 정책 및 기술혁신 변화 트렌트를 감안하여 실천과제를 11개로 개편하여 3국 간 협력의 구체성을 더하였다.

실천과제 세부 내용은 부속서에 작성하였으며, 부속서의 Part 1은 기존 실천과제를, Part 2는 현 시점부터 이행될 새로운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4.1 실천과제는 이행수준과 의제체계를 고려하여 3국이 합의 하에 개편한다는 의견을 공유했으며, 각국은 3개의 실천과제를 주도하고 공동으로 2개의 과제를 관리할 것이다.

4.2 공동의 과제는 “3국의 지역 연계 촉진 이니셔티브 관련 프로젝트 및 정책협력”과 “운송 기술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공동 노력”이다.

4.3 한국은 북극 해운물류에 관한 3국 정보공유 및 협력증진(실천과제1), 물류보안 확보와 물류 효율화 조화 방안 모색(실천과제7), 신선물류 네트워크 활성화(실천과제8)를 주도할 것이다.

4.4 중국은 3국 물류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타 지역으로의 적용 확대 (실천과제3), 동북아 해륙복합운송 경험공유 및 협력발전(실천과제4), 항만간 밀접한 협력 관계 증진(실천과제6)을 주도할 것이다.

4.5 일본은 트레일러 야시 상호 주행 및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실천과제2), 운송수단의 표준화 및 재활용 촉진(실천과제5), 친환경적 물류체계 구축(실천과제9)을 주도할 것이다.

5. 우리는 본 선언서에 수록된 개편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아래 사항에 합의하였다.

5.1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우리는 트레일러 야시 상호주행이 해륙 운송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물류를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했다. 이에 따라 3국은 해륙 복합수송 트레일러 야시에 대한 3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에 트레일러 상호주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기 체결한 협정을 바탕으로 트레일러 상호주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은 송하인과 물류업체의 수요를 파악하여 현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상호주행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더욱

긴밀히 상호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동북아 물류서비스 네트워크(NEAL-Net)의 정보공유 서비스를 개선하고 활성화하며 정보공유 항만 수를 늘리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운송수단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에서 NEAL-Net 대중화를 추진하고 국가 간 복합운송 공동연구를 시작하며 국제 교류 및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저비용의 환경친화적이며 생산성 높은 물류체계 수립을 실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재활용 운송수단의 국제적 활용 제고를 위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에 기여하고자 우리는 표준규격 팔레트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협력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팔레트의 국가표준 수립을 위해 노력하며 팔레트로 대표되는 다양한 재사용 운송 수단의 표준화와 대중화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컨테이너 해상-철도 복합운송 개발에 대해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상호이해를 높이며 3국 간 컨테이너 해상-철도 복합운송에 대한 잠재수요를 발굴하고 기회와 도전과제를 확인할 것이다.

3국은 세계 신선물류망의 확대와 3국 간 농수산식품의 교역량 증가에 주목하고 식품안전, 식품폐기물 감소 등을 위한 원활한 콜드체인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동연구 수행 및 협력 플랫폼 구축을 장려할 것이다.

5.2 환경 친화적 물류 구축

우리는 환경친화적 물류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이 공동의 도전과제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환경 의식이 높은 공급망 당사자가 늘어남에 따라 3국의 환경친화적 물류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장관회의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사업이 환경친화적 물류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환경친화적 물류 구축을 위해 3국간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각 국의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증진할 것이다.

5.3 물류보안과 물류효율화의 조화 달성

우리는 물류보안에 대한 국제 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며, 물류보안 중시 문화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3국 간 물류보안 관련 교육에 대한 정보공유를

장려할 것이다.

물류보안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리는 3국의 연구기관 및 민간분야가 물류 보안 관련 기술을 연구하도록 장려하고 이들과 협력할 것이다.

6. 3국의 지역 연계성 촉진 이니셔티브를 위한 프로젝트 및 정책 협력 강화

6.1. 우리는 3국의 주요 이니셔티브,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일본의 “확장된 질적 인프라를 위한 파트너십”, 그리고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이 운송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인지한다.

6.2. 우리는 지역 연계성 및 사회기반시설 협력을 강화한다는 제7차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따라 운송 인프라 간 연계성을 증진하고, 3국간 정책, 규칙 및 기준의 공유를 도모할 것이다.

7. 운송기술 분야 4차 산업혁명 관련 공동노력

7.1 우리는 4차 산업이 교통 및 물류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지하고 3국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7.2 특히 3국은 교통 및 물류 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촉진하고, 전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3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율운항 및 자율운항선박(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등 스마트 운송기술의 현실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며,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규정 마련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8. 대외 협력 프레임워크

8.1 우리는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의 지난 12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3국간 업무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며, 교통물류장관회의에 대한 3국 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8년 7월 한중일 협력사무국(TCS)의 전폭적인 협조 하에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본 온라인 홈페이지는 제 7차 장관회의를 계기로 운영 개시된다.

8.2 우리는 본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3국간 정책 자료와 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갈 것이다.

8.3 우리는 3국 협력강화에 대한 한중일협력사무국의 역할을 재확인했으며, 한중일협

력사무국이 보다 폭넓게 3국 교통물류체계에 참여하는 것에 지지를 표명했다.

9. 차기 장관회의는 2020년 일본에서 개최될 것이다.

9.1 장관회의는 격년으로 개최하고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는 과장급 회의 2회, 국장급 회의 1회로 정례화 하되 필요 시 3국의 합의 하에 추가 개최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10.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회의 주최 및 따뜻한 환대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별첨(Annex) : 2018 Action Plan (Part1 /Part2)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를 위하여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신하여 서명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운수부를 위하
여

허 지엔쥬 (HE Jianzhong)

교통운수부 부부장이

교통운수부 부장을 대신하여 서명

일본 국토교통성을 위하여

마사토시 아키토

(Masatoshi Akimoto)

국토교통성 대신정무관이

국토교통성 대신을 대신하여 서명